

아내학대에 대한 세대전이 과정 연구

The Analysis on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Wife Abuse

전남대학교 가정관리학과
교 수 김 경 신
박사과정 김 정 란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University.

Professor : Kim, Kyeong Shin

Doctoral course : Kim, Jung Ran

◀ 목 차 ▶

- | | |
|------------|------------|
| I. 서 론 | IV. 결과분석 |
| II. 이론적 배경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

This study examines the extent to which mediator variables, including hostility, paranoid, and attitude toward wife abuse, help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exposure to violence in family of origin while growing up and subsequent abuse against wives. SPSS 10.0 for windows is used to examine data obtained through 223 married men who live in Kwangju.

The findings indicates that (a) exposure to violence in family of origin while growing up is related to all mediator variables; (b) exposure to violence in family of origin while growing up and mediator variables are associated with abuse against wife; (c) experiencing of child abuse predict perpetration of sexual abuse against wife, and witnessing of father-to-mother abuse account for more strongly perpetration of psychological and physical abuse against wife; (d) in general, exposure to violence in family of origin has more strong indirect impact on wife abuse for adult male.

주제어(Key Words): 아내 학대(wife abuse), 세대전이(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아내 학대 태도 (attitude toward wife abus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폭력의 세대전이는 아내학대나 가정폭력의 원인 및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주제인 동시에, 지지와 비판 역시 끊임없이 계속되는 주제이다. 이는 “폭력이 폭력을 낳는다(violence begets violence)”로 요약할 수 있으며, 성장기에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직접 피해를 입은 폭력노출경험을 통해, 개인이 폭력을 일종의 행동방식으로 유형화하여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신이 신체적 학대를 당했거나 부모의 폭력을 목격한 경우, 성장 후 자신의 자녀와 배우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여러 연구들에서 보여 주고 있다(김재엽, 1998; 안영희, 1998; Hotaling & Sugarman, 1986; Kalumss, 1984; Straus, 1983).

그러나, 가정폭력의 세대전이는 너무 과장되었으며, 분석 자체가 단순화되었다는 비판 또한 제기되었는데, Hotaling과 Sugarman(1990)은 다른 위험 요소들을 통제하면 원가족에서의 폭력경험과 현재의 아내학대와의 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하였으며, MacEwen과 Barling(1988), Tontodonato와 Crew(1992)는 원가족에서의 폭력경험과 성인기 가정폭력 사이의 관계는 아주 미약하거나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최근 들어 아내학대 연구자들은 단순히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이 성인기에까지 이어진다는 일차적인 논의에서 벗어나 어떠한 메커니즘을 통해 아내학대가 전이되는가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Corvo & Carpenter, 2000; Downs, Smyth, & Miller, 1996; Egeland, 1993; Foshee, Bauman, & Linder, 1999; Kaufman & Zigler, 1993; Markowitz, 2001).

그 결과 일부 연구(Holtzworth-Munroe, Bates, Smutzler, & Sandin, 1997; Stith, Rosen, Middleton, Busch, Lundeberg, & Carlton, 2000)에서 원가족에서의 폭력노출경험과 현재 아내학대 사이의 관계는 그다지 유의하지 않고,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아내학

대의 세대전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 역시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른 변인들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아내학대 세대전이 매개변인으로 일부 연구자들은 아내학대에 대한 태도를 제안하였는데, Markowitz(2001)는 성장기 가정폭력 경험이 아내학대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태도는 아내학대 행동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김재엽(1998)의 연구도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한 구타를 목격한 경험과 아내학대 태도는 관련이 있으며, 태도는 아내학대 행동과 높은 상관이 있음을 시사하였다.

또한 개인의 성격 특성 역시 아내학대의 세대전이과정에서 매개변인 역할을 하며(김광일, 1992; Downs et al., 1996), 성격 특성이 학대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Ali & Toner, 2001)가 최근 제시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아내학대 세대전이가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변인들간의 상호작용이 아내학대 세대전이의 보다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아내학대에 대한 정책이나 서비스는 세대전이 메커니즘의 정확한 분석에 기반 할 때, 세대전이 매개변인들의 변화를 유도하여 가정폭력 노출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키고, 세대전이를 단절시켜, 궁극적으로 아내학대를 예방하고 근절시키는 방향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다

그런데, 현재 국내의 아내학대 및 가정폭력 관련 연구는 폭력의 원인을 설명하는 다양한 변인 중의 하나로써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을 포함시키거나(김재엽, 1998; 손정영, 1998; 안영희, 1998; 연세대 학교 사회복지연구소, 1999), 가정폭력이 청소년이나 아동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김경희, 1995; 김재엽·양혜원, 1995)가 이루어지고 있을 뿐, 성인들을 대상으로 아내학대 세대전이 메커니즘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지난 1년간 아내학대 가해경험이 있는 기혼남성을 대상으로 아내학대 세대전이를 검증하고,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선행연구들에서 밝혀진 성격 특

성과 아내학대 태도를 중심으로 아내학대 세대전이 내부의 역동적 발달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문제 및 연구모형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문제와 연구모형 (그림 1)은 다음과 같다.

- 1) 기혼남성의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아내학대의 일반적 경향은 어떠한가?
- 2) 기혼남성의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성격 특성, 아내학대 태도, 아내학대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 3) 기혼남성의 성격 특성과 아내학대 태도를 매개로 한 가정폭력 세대전이의 인과관계는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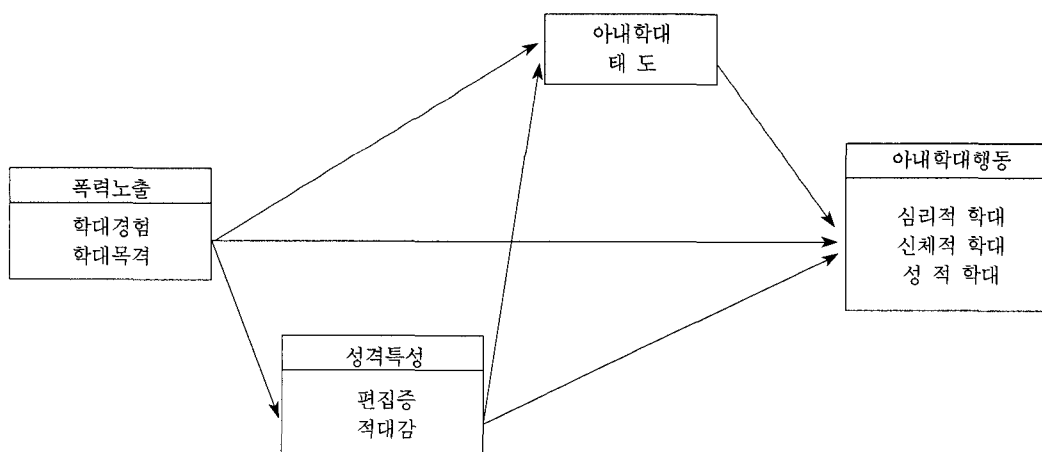
1. 아내학대의 세대전이

사회학습이론에 의하면 개인은 타인의 행동과 그에 대한 긍정적 결과를 관찰함으로써 학습을 하게 되는데, 폭력은 강요를 위한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

에, 가정폭력을 관찰한 자녀는 폭력사용에 대한 기능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자주 보게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Foshee 등(1999)이 지적하였듯이,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것을 목격한 자녀는 폭력사용 후 아버지의 바램과 결과가 일치한다는 것 역시 관찰할 수 있다. 따라서 폭력적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는 폭력의 부정적 결과보다 기능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더 많이 관찰하였기 때문에 폭력을 사용하게 되고, 폭력에 대한 긍정적 결과예측을 형성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폭력을 당한 경험에 의해서도 폭력행위는 학습되어질 수 있는데, 성장기에 폭력을 경험하였을 경우 성장한 후에 자신들도 가족간에 발생하는 유사한 상황에서 폭력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김광일, 1992; 정준미·이재연, 2000).

이와 같이 폭력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개인은 폭력을 관찰하거나 경험함으로써 권력과 통제의 형태로 폭력을 학습할 수 있다. 즉 가정은 하나의 폭력 훈련의 장으로써, 어린 시절 관찰하거나 경험한 폭력이 성인이 되어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폭력행위로 재현되도록 하는 초기 사회화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와 관련된 아내학대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여러 연구에서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그림 1> 연구모형

많을수록 훗날 아내학대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광일, 1992; 안영희, 1998; 손정영, 1998; Alexander, Moore, & Alexander III, 1991; Corvo & Carpenter, 2000; Foshee, Bauman, & Linder, 1999; Markowitz, 2001). 특히 남성에게 있어 성장기 학대경험과 부부폭력 목격경험은 훗날 아내학대의 강력한 예측변인으로 발견되었으며, 특히 부부폭력 목격경험이 더욱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Downs et al., 1996; Hotaling & Sugarman, 1986; Tolman & Bennet, 1990).

그러나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아내학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매우 미약하며, 폭력노출 경험으로 인한 아내학대에 대한 태도 및 반사회적 성격특성 등 다른 매개변인들의 영향이 더욱 중요하다는 연구결과 역시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다(Stith et al., 2000; Tontodonato & Crew, 1992).

따라서 원가족에서의 가정폭력경험이 성장 후 아내학대를 미리 결정짓는 요인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미래 아내학대에 대한 선행조건은 아니며, 성인기 학대행동으로 전환되는 정확한 메커니즘 역시 확실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성격 특성

일부 아내학대에 대한 정신분석적 연구들(Hotaling & Sugarman, 1986; O'Leary, 1993)은 개인의 심리적 요소 및 성격특성과 학대행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타당성을 입증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O'Leary(1993)는 아내학대의 원인분석에서 개인의 성격이나 기질이 폭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었는데, 이러한 요인들이 작지만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하였으며,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매우 높은 수준의 성격적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근거로, 개인의 성격적 부적응과 아내학대는 정적인 상관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내학대 원인을 분석한 연구(김광일,

1992; McKenry, Julian, & Gavazzi, 1995)에서, 아내를 학대하는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에 비해 성격적 부적응을 경험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적대감이나 편집증은 아내학대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편집증은 부부관계에서 배우자에 대한 과도한 질투 및 의처증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1999)의 조사에서 질투수준이 높은 남성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아내구타율이 약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남편의 질투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아내구타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개인의 성격은 가정 내에서 원만하고 바람직하게 조성된 가족관계나 가정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고 발달되는데, 성장기 가정폭력의 경험이 심리적 부적응 현상과 일탈된 성격형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다수의 연구결과가 보여주고 있다(김광일, 1992; 김재엽·양혜원, 1998; 정준미·이재연, 2000; Mable, 1996; O'Leary, 1993).

실제적으로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많은 남성일수록 공격적이고 충동적인 성향이 강하며, 높은 수준의 적대감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정준미·이재연, 2000; Malinosky-Rummell & Hansen, 1993; O'Leary, 1993). 또한 Pollock 등(1990)은 집단간 연구를 통해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있는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더 공격적이고 반사회적 행동을 많이 한다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Mable(1996) 역시 집단 비교연구 결과,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경계선 성격장애, 만성적 외상 후 증후군, 분노, 불안정한 애착 등 남성의 학대적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지었다.

더욱이 김광일(1992)의 임상연구에서는 아내를 학대하는 남편 중 73%가 폭력가정에서 성장하였으며, 학대남편의 70%가 인격장애로 진단되었는데, 그중 편집성향과 반사회성이 가장 특징적으로 나타나, 폭력가정에서 성장한 남성의 성격특성은 편집성과 반사회성으로 요약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SCL-90을 사용한 김재엽과 양혜원(1998)의 연구에서도 성장기 학대를 경험한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적대감, 편집증 등이 높게 나타나 위의 결과를 지지해 주고 있다.

3. 아내학대 태도

아내학대 태도와 행동 사이의 관계연구에서 아내학대 태도가 학대의 직접적인 원인인가 하는 점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학대행동이 학대에 대한 허용적 태도의 결과로서 나타난다는 점은 전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추세이다.

실제로 Ali와 Toner(2001)의 연구에서 아내학대 태도와 아내학대 행동 사이에는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재엽(1998)의 연구에서도 배우자에 대한 폭력에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지닌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평소에 아내의 뺨을 때릴 수 있다고 응답한 남성의 경우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실제로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비율에 있어서 3배 이상의 높은 수준을 나타내, 아내구타에 대해 남성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실제적인 아내구타 행동에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다른 연구(연세대 사회복지연구소, 1999)에서도 남성의 아내학대에 대한 합리화 정도와 아내구타는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관계에 있으며, 남성이 폭력에 대해 합리화할수록 아내구타 비율이 높아졌다. 따라서 아내학대 태도가 아내학대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아내학대를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은 될 수 있다.

그런데 아내학대 태도와 행동 사이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발견된 점은 성장기에 관찰하고 모방되어진 폭력에 대한 태도의 인지적 요소가 문화적으로 전달받은 가치관이나 신념을 통해 아내학대 태도를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다(Corvo & Carpenter, 2000). 즉,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하는 것을 보면서 성장한 아들은 인지의 영역에서 아내학대가 부부생활의 일부라는 왜곡된 신념을 형성하게 되고, 아내에 대한 학대를 당연시하는 태도를 형성하면서, 궁극적으로 아버지가 그러했듯이 자신도 아내를 학대하게 된다는 것이다.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재엽(1998)의 연구에서 아버지의 어머니 구타를 목격한 경험은 현재 아내구타의 허용적 태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내구타에 대해 남편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실제적인 아내구타 행동에 차이가 있었는데,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에 허용적인 태도를 가질 경우 폭력의 정도에 상관없이 실제로 아내를 구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Markowitz(2001)는 성장기 폭력경험은 아내학대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 태도는 아내에 대한 폭력사용의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자신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성장기 폭력을 경험한 남성은 폭력을 유발하는 특정한 태도를 습득하여 아내를 학대하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개인의 성격 특성과 아내학대 태도사이의 관계를 연구한 경우(Ali & Toner, 2001)는 거의 드문 편이지만, 폭력가정에서 성장한 남성이 그렇지 않은 남성에 비해 편집증이나 적대감 등 부정적인 성격특성을 지닐 가능성이 많고, 학대에 대해 더욱 허용적인 태도를 취하며, 아내학대율이 높다는 점에 미루어 볼 때, 부정적 성격특성이 아내학대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남성이 아내학대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형성하는가 하는 것은 성장과정에서의 폭력노출경험 및 개인의 성격특성과 관계가 있으며, 아내학대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형성할수록 아내학대의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1. 조사도구

1) 사회인구학적 특성

사회인구학적 특성으로는 연령, 학력, 직업, 월 평균개인소득과 가계소득, 혼인지속기간과 평균 결혼연령 등을 알아보았는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항 목	구 분	명(%)
연 령	30대 이하	65(29.1)
	40대	119(53.4)
	50대 이상	39(17.5)
	평 균	43.00(6.3)
학 령	중졸 이하	19(8.5)
	고졸	103(46.2)
	대졸 이상	101(45.3)
개인소득	없음	2(0.9)
	100만원 이하	24(10.8)
	101만원-150만원	51(22.9)
	151만원-200만원	71(31.8)
	201만원-250만원	41(18.4)
	251만원 이상	34(15.2)
평 균	199.74(77.6)	
가계소득	100만원 이하	10(4.5)
	101만원-200만원	82(36.8)
	201만원-300만원	68(30.5)
	301만원 이상	63(28.3)
평 균	279.32(134.2)	
직 업	기능·기술직	33(14.8)
	단순노무직	2(0.9)
	사무직	54(24.2)
	서비스·판매직	7(3.1)
	자영업	32(14.3)
	전문직	93(41.7)
	무 직	2(0.9)
혼인지속 기 간	5년 이하	16(7.2)
	6년-10년	39(17.5)
	11년-15년	72(32.3)
	16년-20년	57(25.6)
	21년 이상	39(17.5)
평 균	14.84(6.3)	
결혼연령	평 균	28.67(3.8)

2)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부모가 자신에게 행한 폭력과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한 폭력을 목격한 경험을 회상하여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학대경험을 묻는 2문항은 Cronbach's

$\alpha=.75$, 학대목적을 묻는 2문항은 Cronbach's $\alpha=.82$ 로 나타났다.

3) 성격특성

개인의 성격특성은 남성의 아내학대 행동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적대감과 편집증, 두 가지 성향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간이정신진단검사(Symptom Checklist-90-Revision: SCL-90-R)에서 이 두 가지 성향에 관한 항목들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는데, 적대감 관련 6문항과 편집증 관련 5문항을 합하여 총 1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적대감 및 편집증적 성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적대감의 경우 Cronbach's $\alpha=.82$, 편집증의 경우 Cronbach's $\alpha=.77$ 로 나타났다.

4) 아내학대 태도

아내학대 태도를 알아보기 위해 김광자와 김광일(1984)이 개발한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척도를 수정·보완하여 5문항을 사용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내학대에 허용적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86$ 을 나타내었다.

5) 아내학대

아내학대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는 Straus 등(1996)이 개발한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는데, 지난 1년간 자신이 아내에게 행한 심리적 학대 6문항, 신체적 학대 7문항, 성적 학대 4문항, 총 17문항으로 구성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아내학대 행동을 많이 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심리적 학대 Cronbach's $\alpha=.87$, 신체적 학대 Cronbach's $\alpha=.92$, 성적 학대 Cronbach's $\alpha=.84$ 로 나타났다.

2. 자료수집 및 분석

본 연구는 결혼한 지 1년 이상 된 광주지역의 기

혼남성을 조사대상으로 설정하고, 자기보고식으로 답하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의 표본을 추출하기 위해 다단계 집락별 무작위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광주지역 세대수 비율에 맞게 구별 표본수를 책정한 뒤, 집락(cluster)의 단위를 정하여 추출할 집락수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총 세대수에 의해 집락을 비례추출한 후, 각 집락에서 추출해야 할 세대수를 계산하여 구별 최종 표본수를 추출하였다.

표본추출 후, 2000년 10월 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구별 집락수에 의거하여 기혼남성 50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무작위 배포한 후 회수하도록 하였으며, 질문지의 응답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각 질문지를 양면테잎이 부착되어 있는 개별봉투에 넣어 배부한 후, 응답 후 응답자가 봉투를 밀봉하도록 하여 회수하였다.

그 결과 445부가 회수되었는데,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도록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지난 1년간 아내학대 유경험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경우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총 223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본 자료의 분석을 위해 Windows용 SPSS 10.0을 활용하여 Cronbach's α , 기초통계, 상관분석,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V. 결과분석

1. 기혼남성의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아내학대의 일반적 경향

기혼남성의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아내학대의 일반적 경향을 알아보기 위해 5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한 결과는 <표 2>와 같은데, 모든 변인에서 중간점수인 3점 이하가 산출되었다.

가정폭력과 관련된 변인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의 경우 자신이 부모에게

<표 2> 기혼남성의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아내학대의 일반적 경향

변 인	평균(표준편차)	변 인	평균(표준편차)
학대경험	2.48(0.65)	아내학대 태도	2.05(0.83)
학대목적	2.26(0.59)	심리적 학대	1.80(0.58)
적대감	2.46(0.70)	신체적 학대	1.27(0.45)
편집증	2.34(0.64)	성 적 학대	1.38(0.51)

폭력을 당한 경험이 폭력을 목격한 경험보다 점수가 더 높고, 현재 아내학대의 경우는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결과(손정영, 1998; 안영희, 1998)와 달리 성적 학대가 신체적 학대보다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일상적으로 남성들이 신체적 학대보다는 성적 학대를 더 자주 가하고 있으며, 이는 성적 학대를 학대의 한 유형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부부간의 성관계는 상호합의가 없이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남성의 성적 고정관념과 행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인구학적 변인과 아내학대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아내학대 3가지 유형 중 신체적 학대와 교육수준 사이에서만 유의미한 부적 상관($r = -.13, p < .05$)이 있고, 다른 학대유형과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사이에서는 유의미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아내학대가 사회인구학적 특성과는 거의 관계가 없으며, 모든 사회계층에서 발생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본 연구모형 내에 포함된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표 3>), 모든 변인들간에 유의미한 정적상관이 발견되었다.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아내학대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학대경험은 성적학대와 상관이 가장 높고($r = .25, p < .001$), 학대목적은 심리적 학대와 제일 관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r = .31, p < .001$).

전체적으로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 보다 성적 특성이나 아내학대 태도가 아내학대와 더욱 관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심리적 학대($r = .51, p < .001$)와 신체적 학대($r = .41, p < .001$)는 적대감과, 그리고

〈표 3〉 변인간 상관관계

	학대경험	학대목적	적대감	편집증	아내학대 태도	심리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학대경험								
학대목적	.38***							
적대감	.25***	.32***						
편집증	.15*	.24***	.55***					
아내학대 태도	.22***	.21**	.39***	.29***				
심리적 학대	.24***	.31***	.51***	.36***	.33***			
신체적 학대	.24***	.24***	.41***	.35***	.34***	.69***		
성적 학대	.25***	.23***	.25***	.34***	.28***	.48***	.55***	

*p<.05 **p<.01 ***p<.001

성적 학대($r=.34$, $p<.001$)는 편집증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

따라서 성장기 가정폭력은 아내학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기보다 다양한 매개변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2. 기혼남성의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성격특성, 아내학대 태도, 아내학대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

기혼남성의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성격특성, 아내학대 태도, 아내학대 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에 앞서 회귀진단 결과,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 상관성이 .51이하로 나타났고, 분산확대인자(VIF)는 1.01-1.29의 범위로 모두 10이하로 산출되었으며, Durbin Watson 계수(DW) 역시 1.72-2.03의 범위로 2에 근접하고 있어 다중공선성과 잔차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본 자료의 회귀가정이 충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표 4〉), 첫째, 성격특성의 경우, 성장기의 학대경험($\beta=.15$)과 학대목적($\beta=.26$) 모두 적대감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부모로부터의 학대경험이 많고, 아버지에게 의한 어머니 학대목적을 많이 할수록 적대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두 변인의 전체 분산 설명력은 12%였다. 편집증의 경우는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 중 학대목적($\beta=.24$)만이 의미있는 영

향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학대목적 경험이 많을수록 편집증 성향이 높아졌다. 분산 설명력은 8%였다.

둘째, 아내학대 태도에 대한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성격특성 변인의 회귀분석 결과, 자신이 학대받은 경험($\beta=.13$)과 적대감($\beta=.36$), 편집증($\beta=.11$)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적대감의 영향력이 가장 높았다. 아내학대 태도에 대한 세 변인의 분산 설명력은 16%였다.

최종적으로 폭력노출경험, 성격특성, 아내학대 태도 변인을 모두 투입하여, 현재 아내학대 행동에 대한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심리적 학대는 학대목적($\beta=.15$), 적대감($\beta=.41$), 아내학대 태도($\beta=.13$)의 영향력이 의미있게 나타났다. 적대감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학대목적, 아내학대 태도 순으로 심리적 학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전체 분산 설명력은 30%였다. 신체적 학대의 경우는 적대감($\beta=.25$), 편집증($\beta=.15$), 아내학대 태도($\beta=.20$)의 영향력이 유의하였는데, 적대적 성향이 많을수록, 아내학대에 대해 허용적일수록, 편집성향이 많을수록 신체적 학대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변인의 전체 분산 설명력은 22%였다. 성적 학대에는 자신이 학대받은 경험($\beta=.18$), 편집증($\beta=.26$), 아내학대 태도($\beta=.16$)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데, 편집성향이 많을수록, 학대받은 경험이 많을수록, 아내학대 태도가 허용적일수록 아내에게 성적 학대를 많이 하였다. 세 변인의 전체 분산 설명력은 18%였다.

이상과 같이 성장기 학대경험은 성적 학대에서만, 학대목적은 심리적 학대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아내학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그다지 크지 않다고 보고한 선행연구들(Stith et al., 2000; Tontodonato & Crew, 1992)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3. 기혼남성의 아내학대 세대전이의 인과관계

기혼남성의 아내학대 세대전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인과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경로분석을 실시한 후, $p < .05$ 수준에서 유의미한 변인만을 인과모형에 도식화하였으며(그림 2), 각 변인들의 경로계수는 <표 4>에 제시한 β 계수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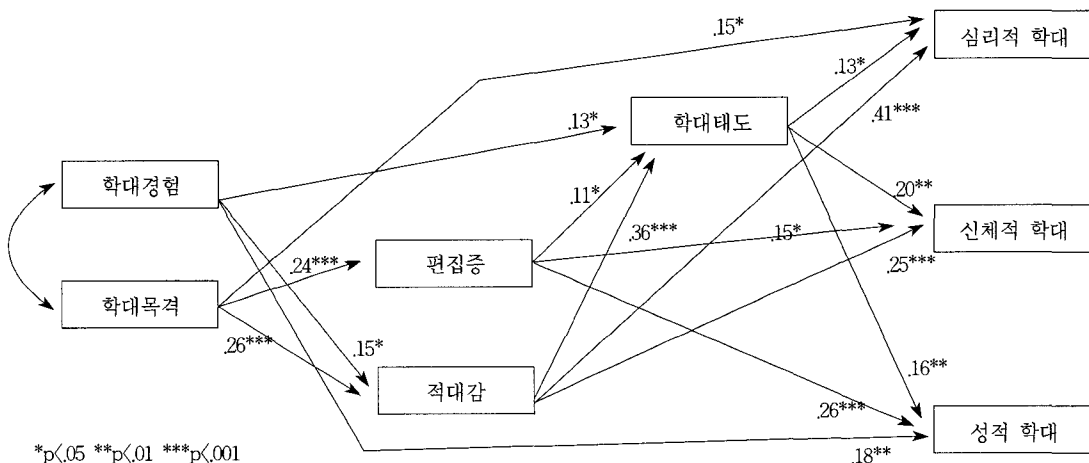
분석 결과 심리적 학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장기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학대목적, 적대감, 아내학대 태도였으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대경험, 편집증이였다.

신체적 학대는 편집증, 적대감, 아내학대 태도로 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성장기 가정폭력 노

<표 4> 기혼남성의 아내학대 세대전이 단계적 회귀분석

종속변인		적대감		편집증		아내학대태도		심리적 학대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B	β	B	β	B	β	B	β	B	β	B	β
가정폭력 노출경험	학대 경험	.17	.15*			.17	.13*					.14	.18**
	학대 목적	.31	.26***	.26	.24***			.15	.15**				
성격 특성	적대감					.43	.36***	.34	.41***	.16	.25***		
	편집증					.14	.11*			.11	.15*	.21	.26***
학대 태도	아내학대 태도							.08	.13*	.11	.20**	.10	.16**
R ²		.12		.08		.16		.30		.22		.18	
F		15.16***		13.12***		22.59***		31.69***		21.29***		15.68***	
D.W		1.94		2.03		1.95		1.72		1.84		1.78	

* $p < .05$ ** $p < .01$ *** $p < .001$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가정폭력 세대전이에 대한 인과모형

출로부터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성적학대의 경우에는 학대받은 경험, 편집증, 아내학대 태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학대목격과 적대감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아내학대 세대전이 모형의 인과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표 5), 첫째,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의 경우, 부모로부터 학대당한 경험은 적대감, 학대 태도, 성적 학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직접효과와 적대감 및 아내학대 태도를 경유하여 모든 유형의 아내학대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를 동시에 지닌다. 그러나 편집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내학대 목격은 편집증, 적대감, 심리적 학대에 대한 직접 효과와 편집증, 적대감, 학대 태도를 통해 모든 유형의 학대에 대한 간접효과를

지닌다.

둘째, 성격특성의 경우, 편집증은 아내학대 태도,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에 대한 직접효과와 학대 태도를 경유하여 심리적 학대를 비롯한 모든 학대 유형에 간접효과를 갖는다. 그리고 적대감은 아내학대 태도 및 심리적 학대, 신체적 학대에 대한 직접효과와 아내학대 태도를 통해 모든 학대유형에 대해 간접 효과를 지닌다.

셋째, 아내학대 태도는 심리적, 신체적, 성적 학대 모두에 직접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아내학대에 대한 변인들의 전체 인과 효과를 살펴보면, 심리적 학대의 경우, 설명력이 가장 높은 변수는 적대감($\beta=.46$)이었으며, 다음은 아버지에 의한 어머니의 학대 목격($\beta=.28$)이었다. 신

<표 5> 가정폭력 세대전이에 대한 인과효과

종속변인	독립변인	총 효과	비인과 효과	인과 효과		
				전체	직접효과	간접효과
적대감	학대경험	.25***	.10	.15	.15	-
	학대목격	.32***	.06	.26	.26	-
편집증	학대경험	.15*	.15	-	-	-
	학대목격	.24***	-	.24	.24	-
아내학대 태도	학대경험	.22***	.04	.18	.13	.05
	학대목격	.21**	.09	.12	-	.12
	적대감	.39***	.03	.36	.36	-
	편집증	.29***	.18	.11	.11	-
심리적 학대	학대경험	.24***	.15	.09	-	.09
	학대목격	.31***	.03	.28	.15	.13
	적대감	.51***	.05	.46	.41	.05
	편집증	.36***	.35	.01	-	.01
	아내학대태도	.33***	.20	.13	.13	-
신체적 학대	학대경험	.24***	.16	.08	-	.08
	학대목격	.24***	.11	.13	-	.13
	적대감	.41***	.09	.32	.25	.07
	편집증	.35***	.18	.17	.15	.02
	아내학대태도	.34***	.14	.20	.20	-
성적 학대	학대경험	.25***	.03	.22	.18	.04
	학대목격	.23***	.15	.08	-	.08
	적대감	.25***	.19	.06	-	.06
	편집증	.34***	.06	.28	.26	.02
	아내학대태도	.28***	.12	.16	.16	-

* $p<.05$ ** $p<.01$ *** $p<.001$

체적 학대 역시 적대감의 설명력($\beta=.32$)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아내학대 태도($\beta=.20$), 편집증($\beta=.17$) 순이었다. 성적 학대에 대해서는 편집증($\beta=.28$)이 가장 설명력 높은 변수였으며, 두 번째 설명력 높은 변수는 자신이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 경험($\beta=.22$)이었다.

본 연구결과,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아내학대의 세대전이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보다 다른 변인들을 통해 아내학대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효과의 영향력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나,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은 다른 변인들에 의해 매개되어 아내학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최근의 연구들(Holtzworth-Munroe et al, 1997; Stith et al, 2000)과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폭력노출경험의 영향을 받는 성격특성, 아내학대 태도 등의 변인이 아내학대 행동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어, 적대감과 편집증, 그리고 아내학대 태도 변인이 아내학대 세대전이 메커니즘을 분석하는데 효과적인 매개변인임이 입증되었다. 더욱이 적대감의 경우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아내에 대한 심리적·신체적 학대 행동을 매개시켜주는 매우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졌다.

V. 결론

본 연구는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지난 1년 동안 아내를 학대한 경험이 있는 223명의 기혼남성을 대상으로 아내학대의 세대전이 메커니즘을 분석한 연구로, 성격특성과 아내학대 태도를 매개변인으로 하여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과 아내학대 사이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의 경우 자신이 부모에게 폭력을 당한 경험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가하는 폭력을 목격한 경우보다 점수가 더 높고, 현재 아내학대의 경우는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순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둘째, 아내학대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심리적 학대는 적대감, 학대목적, 아내학대 태도의 영향을 받고, 신체적 학대의 경우는 적대감, 아내학대 태도, 편집증의 영향력이 유의하였다. 성적 학대에는 편집증, 자신이 학대받은 경험, 아내학대 태도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아내학대 세대전이에 대한 경로분석 결과, 심리적 학대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성장기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학대목적, 적대감, 아내학대 태도였으며,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학대경험, 편집증이었다. 신체적 학대는 편집증, 적대감, 아내학대 태도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며,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로부터는 간접적인 영향을 받았다. 성적 학대의 경우는 학대받은 경험, 편집증, 아내학대 태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학대목적과 적대감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아내학대에 대한 전체 인과효과 분석 결과, 심리적 학대의 경우, 설명력이 가장 높은 변수는 적대감이었으며, 다음은 아버지에 의한 어머니의 학대 목적이었다. 신체적 학대 역시 적대감의 설명력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아내학대 태도였다. 성적 학대에 대해서는 편집증이 가장 설명력 높은 변수였으며, 두 번째 설명력 높은 변수는 자신이 부모로부터 받은 학대경험이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결론 지을 수 있다.

첫 번째,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이 성격특성 및 아내학대 태도 형성 등을 통해 개인의 폭력행동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본 연구결과에 근거해서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정책이나 개입프로그램은 폭력행동 발달을 촉진시키는 위험요소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발달적 관점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성장기 가정폭력 피해경험이 개인의 부정적 성격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가정폭력 피해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 프로그램들이 적극 개발되고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적대감 등의 부정적인 성격형성을 미연에 방지하거나, 이를 순화시켜 주기 위한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할 것이다.

두 번째, 아내학대 태도가 아내학대 행동에 주요 요인이라는 결과는, 태도변화를 통해 아내학대가 감소되거나 예방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아내학대 가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개입프로그램에서는 아내학대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나 왜곡된 신념의 변화를 유도하여 학대재발을 감소시키는 보다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리라 본다.

세 번째, 본 연구결과는 아내학대의 세대전이가 가능함을 지지하지만, 세대전이는 단순히 학습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폭력노출로 인한 부정적인 성격이나 태도형성 등을 통한 매우 역동적이고 복잡한 과정을 거쳐 출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폭력의 세대전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복지정책 및 개입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 즉, 학대아동이나 청소년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 세대전이 예방차원의 복지서비스, 학대받은 아내를 위한 지원서비스나 법적 보호, 학대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아내학대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이나 법적 제재 등이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우리 나라의 가정폭력 관련 정책은 가해자 처벌 등을 중심으로 한 사후대책 마련 성격이 짙고, 가정폭력특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되어가고 있지만, 이러한 법적 장치가 가정폭력 감소에 그다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연구결과들(김정란, 2000: 연세대 사회복지연구소, 1999: 전주여성의전화, 2000)을 감안해 볼 때, 보다 적극적인 예방차원의 정책이나 종합적인 사후 복지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예를 들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폭력가정을 대상으로 한 응급조치 조항 강화 및 아동보호 조항 신설, 피해자 지원 강화,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아내학대에 대한 허용적 인식과 태도형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 등이 이루어져야만 가정폭력을 예방, 근절하여 학대의 세대전이를 방지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안점으로는 우선, 본 연구는 아내학대의 세대전이 내부의 역동적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 있지만, 성장기 가정폭력 경험과 성인기 아내학대 사이의 관계는 유전적 유사성이나 사회적 지지, 유해한 사회환경에 대한 노출 등의 영향 역시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변인 등을 포함한 보다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본다. 또한 본 연구는 회고적 기법을 통한 횡단연구라는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아내학대 세대전이에 대한 완전한 검증을 위해서는 가족발달 전 과정을 통한 종단연구가 요구된다.

그리고 성장기 가정폭력 노출경험의 영향은 본 연구에서와 같이 아내학대로 이어질 수 있지만, 또 다른 유형의 가정폭력 및 범죄행위, 알코올 및 약물 중독과 같은 사회적 일탈행동이나 신체적 질병 및 심리적 부적응 등 또 다른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남성만을 대상으로 학대의 세대전이를 살펴보았지만, 성차에 따라서 가정폭력 노출경험의 영향이 다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성장기 가정폭력이 개인 및 사회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에 대해 더욱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활발한 학제적 논의를 통해 가정폭력 예방 및 개입을 위해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경희(1995). 폭력가정 청소년의 가족폭력 경험에 관한 연구. 중앙대 박사논문.
- 김광일(1992). 구타당하는 아내의 정신의학적 연구. 가정폭력-그 실상과 대책. 서울: 탐구당.
- 김광자, 김광일(1985). 아내구타에 대한 태도조사. 정신건강연구, 3, 218-234.
- 김재엽(1998). 가정폭력의 태도와 행동간의 상관관계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2.
- 김재엽, 양혜원(1998). 자녀학대 피해 청소년의 정신건강 연구. 연세사회복지연구, 5, 37-62.
- 김정란(2000). 아내학대 실태 및 원인분석. 광주여성 의전화 개소10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14-40.
- 손정영(1998). 아내학대 원인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 경희대 박사논문.

- 안영희(1998). 기혼남녀의 부부폭력 경험과 경험에 관한 연구. 대구효성가톨릭대 박사학위논문.
-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1999). 한국가정폭력 실태와 행위자 교정 프로그램 개발 연구.
- 전주여성의전화(2000). 전북지역 가정폭력 현황보고 및 대안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자료집.
- 정준미, 이재연(2000). 부모의 아동기 폭력경험과 자녀체벌과의 관계모형. 아동학회지, 21(1), 85-98.
- Alexander, P. C., Moore, S., & Alexander III, E. R. (1991). What is transmitted in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53, 657-668.
- Ali, A. & Toner, B. B. (2001). Self-Esteem as a Predictor of attitudes toward wife abuse among muslim women and man in Canada.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1(1), 23-30.
- Corvo, K. & Carpenter, E. H. (2000). Effects of parental substance abuse on current levels of domestic violence: A possible elaboration of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process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5(2), 123-135.
- Downs, W. R. Smyth, N. J., & Miller, B. A. (1996).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violence and alcohol problems among men who batter: An empirical review and synthesis. *Aggression & Violent Behavior*, 1(4), 327-344.
- Egeland, B. (1993). A history of abuse is a major risk factor for abusing the next generation. In Gelles, R. J., & Loseke, D. R.(Eds.). *Current controversies on family violence*. Newbury Park CA: Sage Pub.
- Foshee, V. A., Bauman, K. E., & Linder, G. F. (1999). Family violence and the perpetration of adolescent dating violence; Examining social learning and social control processes.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61, 331-342.
- Holtzworth-Munroe, A., Bates, L., Smutzler, N., & Sandin, E. (1997). A brief review of the research on husband violence. *Aggression & Violent Behavior*, 2(1), 65-99.
- Hotaling, G. T., & Sugarman, D. B. (1986). An Analysis of Risk Markers in Husband to Wife Violence: The Current State of Knowledge. *Violence and Victims*, 1, 101-124.
- _____ (1990). A risk marker analysis of assaulted wiv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5, 1-14.
- Kalumss. (1984).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aggression.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46, 11-19.
- Kaufman, J. & Zigler, E. (1993).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abuse is overstated. In Gelles, R. J., & Loseke, D. R.(Eds.), *Current controversies on family violence*. Newbury Park CA: Sage Pub.
- Mable, M. (1996). Early family experiences linked to abusive male personality. *Women's Health Weekly*, Date 15, Month 7, 9-10.
- MacEwen, K. E., & Barling, J. (1988). Multiple stressors, violence in the family of origin, and marital aggression: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Journal of Family Violence*, 3, 73-87.
- Malinosky-Rummell, R, & Hansen, D. J. (1993). long-term consequences of childhood physical abuse. *Psychological Bulletin*, 114(1), 68-79.
- Markowitz, F. E. (2001). Attitudes and family violence; Linking intergenerational and cultural theori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6(2), 205-218.
- McKenry, P. C., Julian, T. W., & Gavazzi, S. M. (1995). Toward a Biopsychosocial Model of Domestic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57, 307-320.
- O'Leary, K. D. (1993). Through a psychological lens: Personality traits, personality disorders, and levels of violence. In R. J. Gelles & D. R. Loseke(Eds.), *Current controversies on family violence*. Newbury Park CA: Sage Pub.
- Pollock, V. E, Briere, J., Schneider, L., Knop, J.,

- Mednick, S. A., & Goodwin, D. W. (1990). Childhood antecedents of antisocial behavior: Parental alcoholism and physical abusiveness.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7(10), 1290-1293.
- Stith, S. M., Rosen, K. H., Middleton, K. A., Busch, A. L., Lundeberg, K., & Carlton, R. P. (2000).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pouse abuse: A meta-analysis.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62, 640-654.
- Straus, M. A. (1983). Ordinary violence, child abuse, and wife-beating. In Finkelhor, D., Gelles, R. J., Hotaling, G. T., & Straus, M. A. (Eds.). *The dark side of families: Current family violence research*. Newbury Park CA: Sage Pub.
- Straus, M. A., Hamby, S. L., Boney-McCoy, S., & Sugarman, D. B. (1996). The revised conflict tactics scales(CTS2). *Journal of Family Issues*, 17(3), 283-316.
- Tolman, R. M. & Bennet, L. W. (1990). A review of quantitative research on men who batter.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5(1), 87-118.
- Tontodonato, P. & Crew, B. K. (1992). Dating violence, social learning theory, and gender: A multivariate analysis. *Violence & Victims*, 7, 3-14.